

# 민천주보

제2852호

2024년 11월 10일 | 연중 제32주일 (평신도 주일)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우리 본당 가족사진 <원미동 루르드의 동정 성모 마리아 성당>, 1977년 설립

**입당송** | 시편 88(87),3 참조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제1독서** | 1열왕 17,10-16

**화답송** | 시편 146(145),6ㄷ-7.8-9.9ㄴㄷ-10ㄱㄴ(◎ 1나)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 히브 9,24-28

**복음 환호송** | 마태 5,3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음** | 마르 12,38-44 (또는 12,41-44)

**영성체송** | 시편 23(22),1-2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 참된 봉헌

옛날에 아주 인색한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에 한 번도 선행이라곤 해본 적이 없어서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이 노파의 수호천사는 하느님께 노파에 대해 좋게 말씀드릴 무슨 내용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한 끝에 가까스로 한 가지를 찾아서 “저 노파는 밭에서 파 한 뿌리를 뽑아 거지에게 준 일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느님은 “그럼 네가 그 파를 가져다가 불바다 속에 있는 저 노파에게 내밀어 그 걸 붙잡고 나오도록 해라!”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노파한테 달려가서 파를 내려주면서, “할머니, 이 파를 붙잡고 올라오세요!”라고 말하고 조심스럽게 그 파를 끌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끌어 올렸을 무렵, 불바다 속에 있던 다른 죄인들이 자기들도 노파와 함께 나가려고 모두가 그 파 뿌리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파는 다른 사람들을 발로 걷어차면서 “나를 끌어 올려 주려는 거지, 너희들이 아니야. 이 건 내 파 뿌리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말하기가 무섭게 파는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노파는 다시 불바다 속에 빠져서 지금까지도 계속 있고, 천사는 구슬피 울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 천사가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거지에게 성의 없이 건네준 아주 인색한 노파의 파 한 뿌리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보증 수표와 같다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동전 두 닢에 대한 축복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제1독서의 사렙타 과부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이웃 사랑을 음식으로 실천했고, 복음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진 돈(2렙톤)을 모두 봉헌했습니다. 과부가 헌금한 렙톤은 예수님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성경에서 함께 언급되는 데나리온과 비교

한다면 1데나리온은 144렙톤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화폐가치로 계산해 보면 1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언급되기에, 올해 한국의 최저시급 9,860원에 8시간 노동이면 78,880원이라서 그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렙톤의 가치는 1,095원 정도입니다. 요즘 편의점에 가면 빵 하나 또는 라면 한 개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과부들은 성전에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배급받고 있습니다. 과부가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는 바로 그곳, 성전에서 그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진 바 전부를 헌금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궁핍한 가운데서 가진 것을 모두 다 바쳤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을 보면 하느님께서서는 “땅의 십분의 일은,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모두 주님의 것이다.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하느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도 하느님이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중요한 표현으로 교무금과 헌금을 정성껏 봉헌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봉헌의 참된 의미와 자세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봉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의 봉헌도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이봉영 요한 세례자 신부  
간석4동 본당 주임

# ‘세계 젊은이의 날’과 ‘세계청년대회’

최인비 유스티노 신부 | 교구 청소년사목국 국장

우리가 ‘세계청년대회’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전 세계 청년들이 모인 국제행사로서의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사실 그 본질은 ‘세계 젊은이의 날(World Youth Day, WYD)’입니다.

1985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세계 젊은이의 날’을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기념하도록 정하셨습니다. 2021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날을 지역 교회의 사목적 필요에 따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변경했다고 하시면서 “세계 젊은이의 날의 중심에는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자리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이 의미를 담아 매년 세계 젊은이의 날에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발표하시면서, 개별 교회의 주교와 모든 사목자들은 젊은이들에 대한 사목적 관심을 표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동반하신 것처럼 젊은이들과 동반하여 그들이 자신의 성소를 발견하고,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야 한다고 권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매년 기념하는 ‘세계 젊은이의 날’은 젊은이들이 교회의 관심과 사목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2-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행사 차원의 축제를 ‘세계 젊은이의 날’과 구분하여 한국 교회에서는 ‘세계청년대회’(이하 WYD)라고 부릅니다.

WYD는 교황님이 주최자로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초대합니다. 전 세계 200여 국에서 적게는 30만에서 많게는 100만 이상의 젊은이들이 참여합니다. 장소 또한 교황님이 정하십니다. WYD는

유럽과 비유럽 지역을 번갈아 개최되는 것이 특징인데, WYD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파견 미사의 마지막 순서인 삼종기도가 끝난 후에 교황님은 다음 개최지를 발표하십니다. 지난 대회들을 보면 2019년에는 북아메리카인 파나마에서 개최되었고, 2023년에는 유럽인 포르투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비유럽에서 개최되는 차례였고 아시아 지역인 우리나라가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WYD는 아프리카를 제외한 5개 대륙 13개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유럽은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에서, 북아메리카는 미국, 캐나다, 파나마 그리고 남아메리카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열렸습니다. 오세아니아는 2008년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아시아는 1995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처음 개최되었는데, 당시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져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약 500만 명이 참가하였고, 32년 만인 2027년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가톨릭 신자가 10% 정도인 비가톨릭 국가이지만, 조선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여 평신도로부터 시작된 특별한 교회입니다. 2027년 WYD는 이러한 한국 교회의 특별함을 전 세계 젊은이들과 나눌 소중한 기회입니다.

갈갈수녀님



언제나 나눌 수 있어요

# 이승훈 베드로 역사공원 개장 기념 합창제에 다녀와서

한은레 세실리아 | 강화 본당

“은혜로우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 제게도 이승훈 성지 기념관 합창제에 참석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3년 만의 첫 합창제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록 발을 디딘 지 채 일 년도 안 된 새내기 신자이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영광스런 무대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감개무량했습니다.

저는 23년도 성탄절에 세례를 받은 햇병아리여서 성가도 모르는 게 많고, 모든 게 생소한 가운데 올 3월에 성가대에 입단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노래를 좋아해서 즐겨 부르지만, 경험도 없고 낯설기만 한 성가대는 제가 받아들이기에 버거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옆에 계신 지휘자 선생님의 가르침과 자상한 격려에 한 곡 한 곡 익혀가는 과정이 즐겁고 날로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합창제가 있다기에 용기를 내어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곡명이 <I will follow him> 였습니다. 우리말로도 성가를 익히기 쉽지 않는데 팝송이라니... 같은 성가대원님께서 ‘저분은 참 용기가 대단하셔. 어떻게 합창제에 나갈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용기가 있다기보다는 너무 뻔뻔스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예수님을 안 지가 얼마나 됐다고 감히 네가 그 큰 무대에 욕심을 내다니’라며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때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연습을 했는데, 가사를 외워야 하고 울동까지 있다니 제힘으로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이젠 빼도 박도 못하겠고, 성모님께 매달리며 준비하는 3개월간 아침저녁으로 묵주기도를 봉헌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니 힘들었습니다. 가사를 외우면 울동이 잘 안되고, 울동이 되면 가사가 잘 안되고... 점점 실의에 빠져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외치듯이 다짐했습니다. ‘남들보다 두 배 더 연습하면 되겠지!’ 하는 각오로 열심히 한 결과 가사도 울동도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것은 전지전능하신 성모님의 도움이 컸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는 눈을 뜨면 의무적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묵주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무대 위에서 떨지 않고 자신 있게 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성모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성모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이 없으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유난히도 뜨끈뜨끈했던 여름, 불철주야(不撤晝夜) 기도해 주신 본당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모든 신자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푸념하듯 기도문도 외웠다가 며칠 안 하면 까먹는다고 했더니, 어느 자매님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차차 알게 돼요.”라며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진리를 믿으며, 언젠가는 단단히 뿌리내려 성모님께 돌려드릴 날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는 성모님과 대화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합창제의 끝은 아쉬움이 많았지만, 결과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한 지휘자 선생님, 반주자 선생님, 그리고 강화지구 합창단원 선생님들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교구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생태환경학교 수료식 및 종강 미사



▲ 10월 7일 토종종자 산지 방문(경북 상주시 봉강리)

교구 홍보기자 장민영 클라우디아 10월 22일(화) 교구 생태환경사목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사회사목국장 오병수 스테파노 신부)는 사회사목센터에서 하반기 생태환경학교 종강 미사와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보호하고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보전하고자 5주에 걸친 강의를 통해 본당 환경분과장 및 하늘땅물벗회원, 생태에 관심 있는 신자 74명이 수료하였다. 참가자들은 미사에 앞서 지난 강의들을 되돌아보며 체험과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생태사도직 실천을 다짐하였다. 강론에서 오 신부는 “마음속에 심어진 좋은 씨앗들을 잘 가꾸고 정성을 다해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희망과 인내”임을 강조하며 이번 배움의 실천과 전파를 부탁하였다.

###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후원회원 감사 미사

10월 23일(수)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사장 이용권 베드로 신부)은 박순집 베드로 홀에서 후원회원 초청행사를 진행하였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온 후원회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본 행사는 6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1부 찬양 사도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와 2부 후원회원 감사 미사로 진행되었다. 이날 사무총장 최인비 유스티노 신부는 “재단에 늘 사랑을 보내주시는 후원회원분들 덕분에 교회 안팎의 다양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웃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기도를 보내주시길 청한다”고 전하였다.



교구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 제24회 인천ME 가족모임



10월 27일(주일) 인천ME(=지도 가정생명사목부 정하선 베드로 신부)는 보니파시오 대강당에서 제24회 인천ME 가족모임을 진행하였다.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주제를 통해 부부대화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11개 지구가 참여해 기쁜 우리 여정을 표현한 경연이 이루어졌고,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의 집전으로 파견 미사가 봉헌되었다. 정 주교는 강론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의 축제를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지닌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서로에게 표현하기 위함이다”라고 전하였다. 이어 시상식과 제27대 새 대표 부부팀 인사, 그리고 폐회 선언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인천ME

###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제22회 학술연구발표회

1일(금)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지도 명형진 시몬 신부)는 보니파시오 대강당에서 ‘사제성소, 함께 나누는 고민-“인천교구 사제양성 실태조사”의 해석과 대화’를 주제로 제22회 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민택 신부(=수원가톨릭대학교 교수)의 “인천교구 사제양성 실태조사”의 신학적 근거와 전망’에 관한 첫 주제발표가 발제 되었다. 윤만근 신부(=가톨릭대학교 교수/돈보스코청소년영성사목연구소 소장)의 ‘사제성소 계발에 대한 도전과 전략-2023년 인천교구 사제양성 실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의 두번째 발제가 이어졌고, 세번째 발제로는 ‘포스트 코로나를 사는 젊은 세대에게, 교회는 성소의 매력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주제로 이재천 신부(=인천교구 풍무동 성당 주임)가 발표하였다. 이후 참가자들의 조별 나눔의 시간을 통해 함께 대화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종합 정리로 마무리하였다.



교구 홍보실

### ‘위령의 날’ 선종사제 및 모든 연령들을 위한 미사



교구 홍보실, 평현, 포동 본당, 김포 본당 2일(토) 백석 묘원 하늘의 문 성당(=주임 김형찬 가브리엘 신부)에서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와 교구 사제단의 집전으로 선종 사제 및 모든 연령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봉헌하였다. 강론에서 정 주교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1코린 7.31)의 말씀을 깨닫고, 선종 기도와 함께 지상을 넘어 하느님께로 향하는 진정한 과정이자 관문인 영원한 삶의 은총을 청하자”고 당부하며, 더불어 우리 곁에 있던 이와 선조들, 특히 선종 사제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전하였다. 하늘의 문 성당은 지하 1층과 지상 4층(연면적 4,656.65㎡) 규모로 설계되었으며, 내년 3월 완공될 예정이다. 같은 날, 마전동 묘원과 포동 묘원, 김포 매곡의 모후 묘원에서 위령의 날 미사가 봉헌되었다.

교구 홍보실, 평현, 포동 본당, 김포 본당

### 이 주에 기억해야 할 선종사제

차동엽 노르베르토  
2019.11.12 선종



(메) 전 미카엘  
1989.11.14 선종



#### 교구청

#### 11월 김포·강화지구 예비신학교 모임

일시: 11/17(주일) 13:30 김포 성당  
대상: 중1~고2

#### 11월 예비신학교 모임

일시: 11/17(주일) 대건고등학교  
11:00 중1, 중2, 신학과지원반  
14:00 중3, 고1, 고2

#### 11월 경청대화모임

일시: 11/18(월) 19:00~21:00  
장소: 노동자센터(경인로671)  
문의: 032-765-6970 정의평화위원회

#### 노동사목 무료 노동상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노동조건 변화, 고용 차별 등  
문의: 032-502-3009

#### 평화기행

일시: 11/23(토) 8:00~16:00  
장소: 파주 참회와 속죄의 성당  
신청마감: 11/15 (참가비-2만원)  
문의: 032-765-6970 정평위

#### 제4회 창작생활성가제

일시: 11/24(주일) 15:00  
장소: 보니파시오 대강당  
문의: 032-765-6964

#### 교육 | 미사

####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12/6(금)~14(토)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열두 소예언서 II: 12/20(금)~22(주일)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 본당사목회장단 및 교구 단체장, 공소회장 연수

일시: 12/7(토) 10:00~12:00  
장소: 보니파시오 대강당  
대상: 본당 사목회장단 및 공소회장, 교구 단체장  
신청마감: 11/30(토) 18:00까지  
신청접수: 032-761-6676(팩스)  
문의: 032-761-6675 평협

####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1일 대피정

수험생과 가정을 위한 1일 대피정  
일시: 11/14(목) 10:00~16:00  
14:30~16:00 미사·안수  
장소: 교구청 보니파시오 대강당  
강의: 김재덕 베드로 신부  
문의: 032-761-6301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 성서주간 '말씀의 잔치'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사람들" (마르 4,10-12 말씀묵상)  
일시: 11/26(화) 10:00~13:00  
장소: 부평1동 성당  
대상: 교구 전신자  
강사: 정천 요한 사도 신부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마감: 11/17(주일)까지 (1인당-1만5천원)  
접수: 각 본당 말씀의 봉사자(가톨릭성서모임),  
교구 성서사도직,  
cblm-incheon@naver.com  
문의: 032-765-6967 교구 성서사도직

####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2025년 피정접수 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자연순례: 12/6~8, 14~16,  
25/1/11~13, 16~18  
한라산 눈꽃산행: 25/1/20~22, 24~26, 2/1~3  
연말연시(한라산, 해돋이, 해돋이): 12/29~25/1/1  
문의: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 낙태 후 화해피정-착한목자수녀회

일시: 11/15(금)~17(주일),  
12/6(금)~8일(주일) [2박 3일]  
장소: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인천)-회비 없음  
문의: 010-6637-1366 변 바울라 수녀

####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 집 피정

·개방의 날 무료피정:  
12/6(금) 매월 첫(금) 10:00~15:30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00  
·고3수험생 부모님피정:  
11/14(목) 10:00~15:00  
·단식피정: 11/25(월)~29(금)  
·대침묵피정(요한묵시록): 12/11(수)~14(토)  
문의: 02-990-1004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 집

#### 글라젯선교수도회 인천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11/11(월) 14:00  
장소: 국제성모병원 장례예식부 B2  
문의: 02-743-7026, 010-7764-6031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일시: 11/12(화) 14:30  
장소: 부평2동 성당  
문의: 032-529-9621

#### 故 차동엽 노르베르토 신부 선종 기일 미사

일시: 11/12(화) 14:00  
장소: 미래사목연구소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문의: 031-986-7141

#### 사회복지회 사랑의 등불 후원회 미사

일시: 11/14(목) 11:00  
장소: 사회사목센터 B1

#### 故 현상옥 스테파노 신부 2주기 추모미사

일시: 12/1(주일) 14:00 연도와 추모미사  
장소: 백석 하늘의 문 묘원



인천가톨릭대학교  
부설 교리신학원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모집 일정** 2024년 11월 1일~2025년 1월 31일 / 예약 대면 접수  
**전형 일정** 2025년 2월 17일(월) 14:00 필기시험 및 면접

정규과정(2년)

**모집 인원** 30명  
**강의 시간** 매주(화·수·목) 14:00~18:00 [주 3일]  
**지원 요건** 견진성사를 받은 만 19~69세 신자  
**지원서** 입학원서 / 본당 사제 추천서 / 자기소개서 / 교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 반명함판 증명사진 2매 / 전형료



**가톨릭문화원 상설 음악피정미사, 무료 콘서트**

일시: 매주(주일, 목) 14:00 가톨릭문화원 아트센터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970-18)  
버스운행: 13:30 장기역 3번 출구 버스정류장 옆 공영주차장  
문의: 1577-3217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제24차 정기 학술 세미나**

“청소년과 생명”  
일시: 11/16(토) 14:00~18:00  
장소: 수원교구청 지하 강당  
문의: 02-460-7623

**노들담 대림 묵상 기도모임(별헤는밤)**

일시: 11/27 매주(수) 19:30~20:30 [총 4회]  
장소: 노들담수녀원(계산동)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선착순 10명  
문의: 010-3930-6730

**모 집 | 일반**

**교구 운영 하늘의 문 성당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방문 및 온라인 위치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 60년(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백만원, 5백만원  
접수: 032-765-7251  
<http://haneul.caincheon.or.kr>

**운수 성당 성가대 유급 지휘자 모집**

서류: 이력서  
문의: 032-937-7922, 010-5389-4467

**천주교 의정부교구 건설 협력사 모집**

신청 방법: 의정부교구 홈페이지-소식-교구소식  
“천주교의정부교구 건설 협력사 모집 안내” 게시물 참조

**필리핀 캠프 인솔 선생님 모집**

업무: 청소년 인솔 및 생활관리  
혜택: 영어연수경비 전액, 봉사인증서  
대상: 12/28(토)~25/2/22(토) 출국 가능한 대학생  
문의: 053-593-1273  
대구가톨릭청소년회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석사과정(5학기): 오르간, 작곡(CCM작곡 포함), 합창지휘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자격증 수여  
원서접수: 12/2(월)~13(금)  
전형일: 25/1/10(금) 최양업홀 (충정로역, 서울역 하차)  
문의: 02-740-9704  
<http://songsin.catholic.ac.kr/music>

**가톨릭상지대학교 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2차: 11/8~22  
문의: 054-851-3021~2 입학홍보처  
<http://ipsi.csj.ac.kr>

**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원서접수: 11/11(월)~25/2/14(금)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예비자 통신교리(우편, 사이버, 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요금: 1만원  
주소: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5234호  
전화: 02-2274-1843~4, [www.cdcc.co.kr](http://www.cdcc.co.kr)

**예수성심 강화김포 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문의: 010-5245-9300

**재속전교가르멜회 회원 모집**

전교가르멜 수녀회의 은사에 따라  
관상과 활동으로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평신도  
문의: 010-3365-2925 일반인반,  
010-6252-4878 직장인반

**순 례 | 기타**

**국내, 해외, 제주도 성지순례**

25/1/7 나가사키 [4일]  
25/1/13 베트남 나트랑·달랏 [5일]  
25/1/21 태국, 파타야 [5일]  
25/2/6 스페인, 포르투갈 [12일]  
제주성지순례 6명부터 출발  
문의: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http://www.michaeltour.co.kr)

**해외 성지순례**

12/10 출발: 라방, 짝깨우 성모발현성지 [5일]  
지도사제 동행(미사)  
문의: 010-5909-5997

**국내·외 성지순례**

11/13(수), 23(토) 원주교구 대안리공소, 배론성지, 풍수원 등  
10/21~25 나가사키, 고토  
11/4~8 다낭 성지순례  
11/15~19 나트랑, 달랏  
11/29~12/4 하노이, 앙코르왓  
문의: 010-9200-3532

**일본 성지순례 3박 4일**

도쿄, 오사카, 아키타, 북해도, 나가사키 120만원  
문의: 010-3645-9028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25/1/14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5/2/10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5/2/17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0만원  
25/3/14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2일] 560만원  
25/3/28 사도 바오로 발자취(터키, 그리스) [12일] 480만원  
문의: 02-722-8366

**해외 성지순례**

25/2/10, 3/17 이탈리아 일주(히련 전대사)  
25/2/11, 3/25 유럽 4개국 성모 발현지  
25/1/17, 2/14, 3/14 시칠리아 몰타 [10일]  
25/3/10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참고 [www.catholictravel.co.kr](http://www.catholictravel.co.kr)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제주도 성지순례**

가족, 단체, 관광 및 성지안내  
차량, 호텔, 팬션 예약 가능  
문의: 010-4566-6476 제주운전기사회

**성 소 모 임**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갈 새로운 가족을 모집 중  
대상: 수도 생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  
문의: 010-5195-3217 성소부

**심화과정(1년)**

**모집 일정** 2024년 11월 1일~2025년 1월 31일 / 예약 대면 접수  
**전형 일정** 2025년 2월 17일(월) 10:00 면접

**모집 인원** 25명  
**강의 시간** 매주(금) 9:30~16:40  
**지원 요건** 인천교리신학원 졸업자 및 타교구 교리신학원 정규과정 이수자  
**지 원 서** 입학원서 / 본당 사제 추천서 / 교적증명서  
반명함판 증명사진 2매 / 전형료

인천교리신학원  
홈페이지 [ds.iccu.ac.kr](http://ds.iccu.ac.kr)

입학 안내에서  
서식 다운로드

오시는 길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 2번 출구  
도보 15분  
(학기 중 셔틀버스 운행)

교리신학원 행정실  
032-830-7137